

보 도 자 료

검찰은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즉각 추가 기소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최근 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제보와 내란 핵심주범들에 대한 석방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
- 추미애의원실과 박선원의원실에 인입된 제보에 따르면, 2023년 11월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방첩사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성향, 민주당과의 친분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 방첩사는 본래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올라온 인사자료에 대한 방첩 차원에서의 신원조사·검증을 담당하는 보조적 조직임에도, 여인형은 그 권한을 넘어서 정치성향 분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군인사를 좌지우지 하려는 계획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정치사찰이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 내부 제보에 의하면, 이러한 방첩사 블랙리스트는 여인형이 상부보고를 위해 신원보안실에 지시를 내렸고, 임기제 대령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과 총암파 막내 진모 중령 주도로 작성했다고 한다. 특히, 여인형은 2025년 육군 참모총장으로, 나승민은 육군 감찰실장으로 인사계획으로 육군 전체를 장악하는 문건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실무보고용이 아닌 김용현과 윤석열에게 보고한 정황까지 있다고 한다. 모두 새롭게 등장하는 의혹들이다.

○ 내란 핵심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일은 김용현은 6월 27일,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이 7월 초까지로 만약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에 온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석방은 사법불신을 키우는 것이자,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는 “다른 예에 따라 김용현 보석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 같다”는 어이없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는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헌정파괴에 가담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태도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주범들의 구속을 풀어주는 데 앞장선다면, 이는 단순한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 이번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간사찰, 불법동원, 인사개입, 내란음모가 복합적으로 얹힌 중대 헌정파괴 범죄이다. 이를 위한 <정보사 비선조직>까지 결코 일부 군 내부 인사들의 일탈로 축소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기도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수처 및 수사당국은 한 치의 은폐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 앞에 단호히 처벌하라.

하나.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살인음모, 불법동원, 사조직 결성 의혹 등 새롭게 밝혀지는 범죄들에 대해 추가기소 단행하라.

하나. 정보사 내부 비밀 사조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방첩사 등의 군 정보기관
이 다시는 군인을 포함해 민간인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거나, 정치에 개입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4시,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
세현 본부장 및 이하 수사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대검찰청에는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등 내란 핵심 종사자들을 고발 접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2025.6.15.(일)

더불어
민주당